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며느리 이미지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A Research on Comparing the Women's Portrayal between Chinese Family Dramas and Korean Family Dramas

이문행, 하일단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Moon-Haeng Lee(moonhlee@suwon.ac.kr), Yi-Dan Xia(xy1984@daum.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상을 비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와 중국 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를 분석 대상으로 채택했다. 여성의 이미지는 가족 드라마에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다. 따라서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상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양국 드라마의 내용을 분석하여 성역할정형화모델과 여성상을 비교한 결과,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가족 드라마 | 성역할 정형화 | 여성상 묘사 |

Abstract

The article compares the women's portrayal between Korean family drama and Chinese family drama. The two dramas are Korean family drama 'the Golden Days of Daughter-in-law' and Chinese family drama 'the Beautiful Days of Daughter-in-law'. There are many ways to see dramas but dramas are the basement which express the society and the culture in that country, and here the women's portrayal is the main theme. The article follows steps: first, through the dramatic episode of two dramas, show the characters of main images. And through the main characters analyze the reared culture and show the same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hosen episodes. As a result of the women's portrayal analysis through the sex-role model,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dramas : new generation of Korean daughter-in-law tend to be very independent and they make effort to develop themselves even though they got married ; for Chinese daughter-in-law, very dependent, family is prior to everything without opportunity of self-development.

■ keyword : | Family Drama | Sex Role Model | Women's Portrayal |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20세기 중반부터 교류를 중단했던 양국은 1992년 외교 정상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상업 등 여러가지 방면에 걸쳐 전례 없는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2005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접수일자 : 2014년 02월 10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5월 08일
교신저자 : 이문행, e-mail : moonhlee@suwon.ac.kr

대상국입과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의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1993년을 기점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중국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한류열풍의 주역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수용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가상의 신분, 사상, 감정을 구축하여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TV 드라마에 나타나고 있는 성역할(gender role)을 통해 그 이미지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TV는 시대가 요구하는 남녀 또는 가족 구성원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대중매체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시각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지배적이고 선호되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생산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가족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상을 파악하고 특정한 유형의 여성상 실천을 바람직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드라마의 재현전략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는 드라마를 통해 바람직한 여성상과 여성상실천에 대한 사회문화적 합의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드라마를 통해 나타나는 가상의 세계는 현실 이상으로 시청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지향하는 가치관은 시청자의 가치관 속에 내면화될 수 있다.

가족 드라마의 서사전개의 바탕은 가정의 윤리의식이다. 가정의 윤리의식은 대부분 가정구성원간의 관계, 예컨대 고부관계 등에서 대화를 통해 제시된다. 시청자는 드라마의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가족 드라마가 제시해 주는 가정 윤리 법칙들을 바탕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드라마 속 등장 인물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당시 보편적인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의 해결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시대가 가진 한계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1].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가족 드라마

에 나타난 여성상을 비교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여성상의 유형과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양국의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경험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TV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며느리 전성시대>와 중국의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는 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히 며느리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대표적인 가족 드라마이다. 따라서 이 두 드라마가 구축하고 있는 여성상, 무엇보다 '며느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양국 여성상을 비교하고 그에 나타난 성역할의 정형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 기존 연구 고찰

한국에서 미디어의 여성 재현이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 속에서 여성과 TV 드라마에서 재현된 이미지로서 여성 사이의 관계를 묻는 미디어 연구자들의 논의는 미디어 성 역할 연구(gender role research)와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의미화 연구(signification study) 등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2].

그중 미디어 성 역할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현실반영모델'과 '사회화모델'을 근간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성 역할 연구는 미디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디어는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여성이미지는 지배적인 사회규범과 사회적 이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는 중요한 사회화 수단으로서 우리의 세계관, 가치와 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미디어에 나타난 지배적인 여성 이미지가 여성과 남성,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미디어는 실제 여성보다는 정형화된(stereotype) 된 이미지를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3].

한국에서 TV 드라마에 대한 성 역할 연구는 주로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의 일’을 중심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4-7].

이 연구들은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과 남성의 정형화된 이미지, 남녀의 출연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실제 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또는 왜곡되게 반영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TV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주의가 얼마나 심한가를 입증하는 양적 분석내용이 주를 이룬다[2].

성 역할 (gender role)은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즉, 이는 언어와 품행, 의복과 동작 등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 역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관념이 종종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역할행동이 극명하게 양극화되기도 한다(여성의 수동성과 남성의 능동성 등). 성 역할에 관한 규정은 노동의 성별 분업과 여성의 작업 상황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난다[6].

성 역할 이론은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된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이를 성역할고정화(sex role stereotyping)라고 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통상적 관념을 의미한다. 오혜란[4]의 국내 드라마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 역할 수행자가 대부분이었고,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문제와 가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의존적, 순종적, 비야심적, 소극적, 낭만적, 인내, 추종적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법조인, 정치인, 작가 등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 여성이 진출하면 여의사, 여성정치인, 여성법조인, 여류작가 등 여성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통상적 성 역할론에 근거한다. 즉, 이런 직업군은 당연히 남성이 가진다는 편견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기존의 여성상에 한정시키려하는 성역할 고정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은 일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서 그 기능을 다한다. 즉, 성역할

에 대해 각 사회마다 다른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한국 드라마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중국 드라마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성역할 정형화에 대한 양국의 차이는 어떠한가?

III.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는 내용분석 방법론이 실시되었다. 내용분석이란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 서적, 라디오, TV, 영화, 상담기록서 등을 통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또한 내용분석법은 의사전달의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한다[8].

본 논문을 위해 연구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가족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를 선정하여 각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특성, 구성원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며느리 전성시대>는 2007년 7월 28일부터 2008년 1월 20일까지 방영된 한국방송공사의 주말 드라마로 환경이 다른 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2007년 7월 방영 당시 <며느리 전성시대>의 시청률은 전국 20.1%(시청률 조사회사 TNS미디어코리아)을 기록했다[9]. 한편, 중국 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는 2010년 3월 29일 북경위시(北京衛視)에서 처음 방송된 후 10.22%로 북경위시(北京衛視)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이후에 전국 여러 방송국에서 재방송되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나오는 며느리의 여성상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전문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자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내용분석 유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해 한국드라마<며느리 전성시대>(총 52회)와 중국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총 36회)를 시청한 후, 성역할정형화모델[8]에 부응하는 장면들을 추출하였다.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두 드라마를 반복하여 시청하고 성역할 모델 항목에 해당되는 장면을 기록한 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면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했다. 또한 양국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각 장면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성역할 정형화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성역할정형화모델[11]

구분	여성	남성
활동범위	가정 이내	가정 이외
인격특징	대인취향, 종족보존 역할	직업취향, 종족보존역할
장난감	인형 및 부드러운 장난감	교통공구, 조작성 장난감
게임	저에너지 소모, 피동적, 구조적인 활동, 소꿉장난	능동적, 공격적, 소모적, 격렬한 활동
자아개념	사회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자신감.
성패요인	노력으로 성공가능. 무능력하면 실패함.	능력으로 성공. 노력없으면 실패함.
선호 이미지	매력적이고 예의바름	독목한 대상
갈등 직면시	타협 및 피할	용감하게 도전함.
직업이미지	종속자 위치	지도자 위치
사회위치	열등함	우월함
가정분업	가정 내부 문제	가정 외부 문제
반대인격성향	슈퍼우먼	여성스러운 남자

IV. 분석결과

1.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성 역할

2007년에 방송된 가족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 <며느리 전성시대>의 개요

작품명	며느리 전성시대	주요인물
방송기간	2007년 7월 28일-2008년 1월 20일	김을동-황심 박인환-수길 역 윤여정-미순 김지훈-복수 역
방송횟수	53회	이영하-민식 김보연-인경 역
방송국가	한국	서영희-복남 이종원-기하 역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이수경-미진 윤주상-연중 역
각본	조정선	이필모-인우 송선미-수현 역 장현성-준명 김혜옥-명희 역

이 드라마는 20-30대 주인공인 신세대 며느리가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드라마이다. 극중의 인물은 권위적인 할머니, 허세를 부리는 아버지,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잔 피를 쓰는 시어머니가 있다. 젊은 세대로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과 이를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희극 형식으로 서술된다. 특히, 족발집 삼대 여인의 생활모습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가정과 혼인에 관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며느리 전성시대>를 통해 분석하는 여성상은 주로 조미진, 차수현과 서미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성역할정형화모델[8]에 따라서 <며느리 전성시대>에서 나오는 남성과 여성상을 비교해보면 [표 3][표 4][표 5]과 같다.

표 3. 조미진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모델

구분	여성: 조미진	남성: 이복수
활동범위	낮에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퇴근후 족발집에서 일함.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쉰다.
인격특징	명랑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 충실	성격이 좋고 남에게 배려심이 많음.
선호 스타일	부드럽고 카리스마 있는 대상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충돌 직면	용감하게 자기 주장을 표형하고 개인 이익을 끝까지 주장.	용감하게 나서고 희생으로서 약한 사람을 보호함.
직업 이미지	디자인 회사의 직원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큼. 아주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을 중시함.	디자인 회사의 실장임,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회적 인정 받는 엘리트임.
사회 위치	사회 중간층에 자리 잡음	사회에 중간층에 자리 잡음.
가정 분업	퇴근 후 가정주부 신분으로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가사를 다 함.	퇴근 후에 아무 가정일도 안 함.

표 4. 차수현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모델

구분	여성: 차수현	남성: 고준명
활동범위	주로 회사에서 활동하고 출장도 자주 감. 가끔 시부모님의 가사를 도와줌.	주로 병원에서 활동 퇴근후 논문을 쓰거나 공부함.
인격특징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반항함.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무뎠고 방황함.
선호 스타일	신비감이 있고 방황하지 않은 대상	전통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충돌에 직면할 때	남편 방황 전 불만을 묵묵히 참고 아내서 충돌을 최대한 도피함. 남편 방황 후: 인내의 극한을 넘	피하고 반항을 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함.

	을 때 능동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논쟁하고 반항	
직업 이미지	사회적 인정을 받은 회사에서 종사하고 디자인 회사 실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있음.	병원에서 의사 겸 실장을 담당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은 직업을 종사함.
사회적 위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 상류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큰 병원을 차려서 상류층 사회에 속한다.
가정 분업	직장인으로서 가정 가사가 거의 없음, 가끔 시어머니 가사를 도와줌.	가정 일을 전혀 하지 않음.

표 5. 서미순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모델

구분	여성: 서미순	남성: 이수길
활동범위	가정 내 및 족발집	어머니 족발집에서 일함.
인격특징	순지하고 옛 가족 전통을 잘 준수함.	전통적이고 허세를 잘 부린 성격임
충돌 직면할 때	시어머니와 충돌시 인내함. 며느리와 충돌시 강한 모습을 보이려하나 제대로 못함.	자기 일이트 남의 일이트 무조건 나서서 참여함.
직업이미지	족발집 종업원	족발집 종업원
사회위치	서비스업에 단순노동을 하는 종업원이라서 사회위치가 낮음.	서비스업에 단순노동을 하는 종업원이라서 사회위치가 낮음
가정분업	모든 가사	가사를 안 함

<며느리 진성시대>에서 나오는 여성상을 성역할정형화모델을 토대로 비교해 보면 신세대 여성인 조미진과 차수현은 활동범위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 벗어나 직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이미지와 사회적 위치도 이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헌신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나 남편과 분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며느리 이미지는 서미순에게서 발견된다. 우선 그녀의 활동범위는 가정 내에 한정되고 단순 노동을 하므로 사회위치와 직업이미지는 높지 않다.

위 모델에서 나오는 여성상을 캐릭터의 성격을 토대로 해석하면 먼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미진은 발랄한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른들에게 무례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나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대처해 나간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는 조미진은 흔히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되기도 한다. 조미진은 직장에서의 역할에도 적극적이고 충실하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크다. 하지만 3년 사귄 남자친구 이복수와 결혼하게 되면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충돌하게 된다.

조미진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왔다. 조미진의 어머니(김보연)은 남편에게 아내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자신의 판단 하에 행동하는 캐릭터이다. 50대의 나이에 인기 있는 음악 강사로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조미진의 아버지는 오히려 권위적이기보다는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이다. 아내보다 훨씬 여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곤 한다. 이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조미진은 당당하고 활발한 여성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조미진이 결혼 후 겪게 되는 일들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이복수의 집안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고 그 중심에 이복수의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60년째 운영하는 족발집은 대대로 물려오는 가업이며, 이복수의 아버지 이수길과 이복수의 어머니 서미순은 그 가업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다. 한편, 이복수의 집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과 조금 차이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의 중심이 할머니라는 사실이다. 즉 남성이 아닌 여성이 이 대가족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복수의 아버지 이수길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항상 자신의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식들에게도 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는 조금 어정쩡한 캐릭터가 되어 버렸다.

반면에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입체적인 여성 모습을 보이는 등장인물이 바로 차수현 역이다.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 며느리로서 이명희 집안에 시집오게 되었고, 초반에는 이명희에게 꼼짝없이 잡혀 사는 며느리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남편 고준명이 전 아내를 잊지 못하고 방황하자, 그녀를 찾아내어 만나러 가게 되면서, 차수현에게 변화의 바람이 인다. 차수현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법도 바꾸면서 섹시하고 도발적인 분위기로 변하게 된다. 이 명희로서는 며느리의 이런 변화가 반갑지 않다. 또한, 아들의 방황 때문에 자신도 며느리에게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차수현은 고분고분한 며느리에서, 사진기사로 일하는 남자 김기하(이종원)와 바람을 피우는 캐릭터로 변하게 되는데, 김기하는 남편의 첫번째 아내의 오빠이다. 즉, 김기하는 고준명을 ‘자신의 여동생을 차버린 쓰레기 같은 남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바로 차수현이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것이다.

사실 차수현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남편의 방황만 아니어도 전통적인 며느리였던 서미순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다(드라마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실재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일지라도,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조차 묵묵히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수현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1980년 대 까지만 해도 차수현은 ‘맞바람을 피는 나쁜 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와 대조하기 위하여 작가는 전통적인 시대 여성상을 구축하였다. 이는 바로 가정에서 이복수의 어머니인 서미순의 모습이다. 옛 시절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표적 여성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던 20세 때 족발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족발집의 종업원으로서 30년을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 이복수의 존재는 남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체적인 여성인 며느리가 예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대로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려 하지만, 며느리와 충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서 나오는 모순과 갈등은 주로 고부간 관계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이는 현대의 여성상과 전통적인 여성상 간의 대표적인 대조이다. 결국 조미진의 캐릭터가 변하지 않으면서 서미순은 며느리의 신세대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며, 또한 자신도 그 성격의 장점을 이어받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미진도 마냥 자신의 행동만을 고집부리기 보다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상이 전통적인 순종적 여성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신세대 여성상으로 변화가는 흐름을 암시한다.

2. 중국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의 성역할

2010년에 방송된 중국 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의 개요

작품명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	주요인물
방송기간	2010.3.29-4.5	백한-조심매/두미-룡금 역
방송횟수	36회	유리리-왕성홍/악약-여호
방송국가	중국	황해파-여미/임신-모봉
방송사	상해동방텔레비전방송국	장가녕-반미려/해청-모두두곤림
각본	왕려평	-양일범/이광부-모건화

간호사 모두두는 선을 불 때마다 촬영 기사 여미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점점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된다. 남자 주인공 여미의 어머니인 조심매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여미와 같이 산다. 또한 여동생 여호도 남편과 사별 후 같이 살고 있다. 모두두는 시어머니 조심매와 심한 갈등을 겪지만, 매번 양보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회시켜간다. 결국, 모두두와 여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효도하여 온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나타나는 여성상은 주로 모두두, 반미려, 백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위의 성역할정형화모델에 따라서 <며느리 전성시대>에서 나오는 남성과 여성상을 살펴보면 [표 7][표 8][표 9]과 같다.

표 7. 반미려의 여성상과 성역할모델

구분	여성: 반미려	남성: 모봉
활동범위	가정 중심으로 행동하고 결혼하기 전 가정 이외의 환경을 접촉 못함.	직장생활을 열심히 함, 직장 외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인격특징	단순하고 순진함. 잘 인내할 수 있음	자유분방. 함. 독단적임.
선호 스타일	솔직한 사람을 좋아함	전문 직업 소유자
충돌 직면	갈등을 회피함. 잘 인내함	갈등 해결에 신경 쓰지 않음.
직업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	전문 직업 예술사,

이미지	주부임. 자기가 노력한 성과를 남편에게 돌림.	매력있는 직업
사회적 위치	사회 경험이 부족함. 사회적 위치가 노력에 비해 높지 않음.	여러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맺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취득함. 아내에게서 존경 받음.
가정 분업	가사 노동을 전담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함. 불만이 없고 열심히 일함.	가정이 요구하는 책임 및 임무를 회피함.

표 8. 모두두의 여성상과 성역할 정형화 모델

구분	여성: 모두두	남성: 여미
활동 범위	가정 중심으로 이를 위해 직업을 수시로 바꿈	일하는 환경이 일정함
인격 특징	가족 내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연결 역할을 함	온 가족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함
성패 귀인	자기의 자질이 부족함	온 가족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
선호 스타일	온화한 스타일	선량한 스타일
충돌 직면	다른 사람의 지도하에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용감하게 감당하고 충돌을 해결함
직업 이미지	서비스업에 종사함. 장기간 간호사, 엘리베이터 헬퍼, 가정도우미로 일함.	전문 촬영사
사회적위치	서비스 분야 노동 집약적 직업,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사회 인정을 받지 못함	어느 정도의 사회 인정을 받음. 사회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음
가정 분업	자발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양보함. 동시에 가족으로부터의 인정과 행복감 느낌.	부일 등 전통적인 주부의 직업장에서 떨어져 있음.

표 9. 백설의 여성상과 성역할정형화모델

구분	여성: 백설	남성: 이약추
활동 범위	가정과 주변 환경	대부분 시간은 직장에서 보냄
인격 특징	여성 친구간의 우정으로 나타남	강렬하게 사업의 성공을 추구함. 끊임없이 근면하며 노력함
자아 개념	배금사상	뛰어난 자기 컨트롤 능력을 갖춘
선호 스타일	외모가 훌륭한 사람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충돌 직면	기본이 분위기에 좌우됨	사태 상황 잘 분석하고 파악함
직업 이미지	간호사	성공한 기업가
사회위치	서비스 분야 노동 집약적인 직업,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 영향력이 큰 성공 인사

위의 표에 의하면, 가정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불공평한 성역할정형화모델을 찾을 수 있다.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은 사소한 일을 끊임없이 따지며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성별특징이 부여되어 있다. 즉,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나오는 여성 이미지에 따르면, 여성은 성숙함이 부족하며 교육

기회를 덜 받으며 사회적 위치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가정 내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자의 성공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인격이나 도덕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있다. 극 중 인물 이약추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약추는 자기 성공을 위해 여자 친구를 버렸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전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 한다. 그는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뛰어난 능력과 문제를 잘 처리하는 이미지도 성공한 남성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미는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여미는 자기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하여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여동생을 건사한다. 또한 가정의 중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가족 드라마는 여성과 남성의 캐릭터를 규정할 때에 철저하게 성역할정형성모델에 근거하여 묘사한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 여성은 당연히 가정을 최우선시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수많은 취직 및 승진의 기회를 포기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는 동기까지 잃어버린다[11].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은 사회적 가치와 보수가 낮다.

여성의 성역할정형성이론은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여주인공 모두두는 간호사, 가정도우미, 엘리베이터 헬퍼 등 회사 사장인 이약추, 촬영사인 여미, 마술사인 모봉 등 남자 등장인물에 비하면 사회적 위치가 낮은 서비스 업에 종사한다. 모두두의 직업 선택은 온전히 가정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그의 온화하고 인내심이 있는 성격은 중국 남성의 마음속에 가장 매력적인 이상형의 여자로서 자리 잡는다.

반면 며느리와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하나, 여자로서 남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조심매와 같은 전통적인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남자의 기를 누르는 것도 중국 사회가 꺼리는 부분이다. 기가 센 통진은 버림받고 무시당한다. 요컨대 중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상은 여전히 모두두와 같이 남편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모든 가사를 전담하며 자기의 노력 성과를 남편에게 돌리는 여성상이다.

3. 드라마에 나타난 주제별 한·중 여성의 이미지

1) 결혼의 조건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나타난 여성은 사랑 지상주의자다. 결혼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한다. 여주인공 조미진은 연애할 때 서로의 가정 상황을 전혀 모른다. 심지어 결혼을 결심할 때에도 이복수의 형제자매 유무조차 모르는 상태다. 물론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드라마는 사랑을 중시한다는 점을 극화시키기 위해 현실감 없는 설정을 한다. 물질적인 개입을 제거하기 위해 남편 이복수의 할머니도 단호히 며느리의 혼수를 거절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늘 행복하지는 않다. 조미진은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술을 마신 후 '내가 원하는 사랑이 이것이 아니다'라며 푸념한다. 사랑 하나 믿고 결혼하지만, 수많은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드라마와 현실에서 한국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일 것이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등장한 며느리들은 결혼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 경제적 안락함 추구이다. 우선 주인공 모두두의 결혼 동기를 살펴보면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키가 좀 크고 머리가 짧고 듬직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이다. 즉, 여자가 결혼 대상을 선택할 때 경제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모두두가 남편이 될 여미를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부모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모두두의 전 남자친구와 새 남자친구의 경제적 차이이다. 결국 결혼은 허락하지만, "이약추(딸의 전 연인)처럼 돈이 많고 여미(새로운 연인)처럼 얹전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모두두의 아버지를 통해 중국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조건으로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미려 역시, 언니인 반봉황이 강조하듯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삼는다. 반미려에 있어 결혼은 자신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도시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다. 결국 반미려는 도시에 오자마자 모봉의 구애에 아무 주저 없이 결혼하게 된다. 이 때 두 사람 사이의 사랑하는 모습이 드라마에는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2) 경제적 독립 여부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극중 주인공인 남성과 여성의 직업은 거의 다 전문직에 속한다(디자인 회사 실장, 내과 레지던트 등).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독립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미진은 처음에 이복수와 결혼할 때부터 같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과장으로 승진한다. 교수인 친정어머니는 '지금 아이를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면 평생 족발집에서 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차수현도 이러한 독립적인 경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차수현은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끝까지 버티며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준다. 시어머니는 말을 잘 들으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회유하지만, 며느리는 회사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결국 <며느리 전성시대>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다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중국 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 직업은 남성보다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는 여미가 촬영하는 장면, 여홍수가 그림 그리는 장면, 모봉이 프로 마술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약추의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인 간호사나 비서, 판매원, 가정 종업원 등이다. 비록 요정이 광고 회사의 지배인 신분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전문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드물고 비즈니스 협상시 저 자세로 이약추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요컨대 여성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행해지는 노동인 것이다.

3) 고부간 관계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나오는 서미순의 모습은, 옛 시절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며느리 캐릭터이다. 20세에 족발집에 시집와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족발집의 종업원으로서 30년을 살아왔다. 뿐만 아

나라 부모님도 모시고 남편도 돌보며 아이들도 정성스럽게 키운다. 그녀는 과중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큰 소리로 얘기조차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도 전통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기대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신세대 며느리인 조미진은 무작정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인 조미진에게 빨리 퇴근해서 족발집 일을 도우라고 하지만, 조미진은 직장일이 많다고 분명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부부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분가를 제의한다. 드라마 41회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서미순: 그래도 넌 이 집안 며느리야 너 사람 맞아?

조미진: 저는 사람이 맞구요 며느리 이전에 한 인간이에요 전 젓소도 아니고 암소도 아니에요

서미순: 한집안의 며느리로서 애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게 당연한 거지.

조미진: 애를 낳기는 낳는데요. 제가 원할 때 제가 상황일 될 때 그때 애를 낳고 싶어요 이렇게 약을 억지로 먹이면서 거의 동물처럼 취급당하면서 억지로 애 갖기 싫어요

이는 한국의 신세대 여성들이 전통적인 고부간 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서 시어머니인 조심매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을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아들의 부양 의무를 매번 강조한다. 또한 며느리의 사회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드라마 27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모두두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어머니 조심매가 집에서 아픈 자기를 돌봐달라고 한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지 못한다. 모두두는 이런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일자리도 옮기게 된다. 결국 모두두가 오성급 요양원을 조심매에게 권유하지만, 조심매는 분노하고 모두두는 제안을 철회한다. 이와 같이 드라마속에 나오는 여성의 직장은 부차적인 것이며, 언제나 남편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가부장제도의 권위를 통하여 며느

리로 하여금 가정에 헌신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반미려는 자발적으로 모든 가사를 전담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존경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서 가정의 평화를 모색한다. 요컨대 중국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는 전통적인 고부관계를 준수해야 가정의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V. 결론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를 비롯한 중국 가정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성상은 대부분 가정에서만 활동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가사를 전담하고 다른 가족을 위해 늘 자신이 희생한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남편과 어른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물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최근 들어 중국 여성들도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두, 반미려 및 백설 등 여성의 직업은 주로 간호사, 가정도우미, 매점관리원 등 비전문적인 업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업이미지가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위치도 낮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라 자기의 자의식까지도 잃어버렸다.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부모의 의견에 의존한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타협한다. 결국 자아개발을 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는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심리를 해석한다.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정을 여성의 가장 중요한 활동 범위로 규정한다. 여성이 가정에, 남성에게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반면, 가정에 불순종하거나 남성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여성은 “요부”로 간주되고 비참한 운명을 맞게 만든다.

한편 한국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나오는 여성상을 살펴보면, 신세대 여성들의 경우, 가정 중심에서 직장 중심으로 이미지가 변화했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본질인 자유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남성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도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남녀평등은 법으로 보장해주므로 여성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받고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심지어는 특정 분야에서 여성은 독특한 심미관과 꼼꼼한 성격 때문에 남자보다 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며느리 전성시대>에서 나오는 디자인 회사실장 차수현과 과장 조미진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디자인처럼 여성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업종에서 남자는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업 이미지의 상승과 사회적 위치의 제고로 인한 경제적 독립은 더 이상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한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부부관계, 고부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기 시작한다. 여성은 가족 전체 활동에 없어서 안되는 역할로 변하고 있다. 가정과 밖에서 여성의 위치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자의식을 반성하는 정신적 여유가 가지게 한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며 복잡한 가사에서 벗어나 가정은 즐기고 휴식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중 가정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중국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점 많은 여성들이 여성독립의식을 인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남녀 불평등 사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타협과 자기 권리의 희생으로 가정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이끈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행위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항상 평등한 대우와 권리의 희생으로 얻은 가정 평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균형이 잡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현대의 여성들은 자

의식을 찾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벗어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과 종속 간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더 이상 전통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신세대 여성이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성과이고 그들만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 내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평등하게 가사를 분담한다. 그들은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활동범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생활수준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장에 간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이미 젊은 며느리 세대의 주류사상이 되었다. 동시에 사회에 나가므로써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통적인 효를 실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에 나타난 여성상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남녀평등 사상이 요구하는 여성상을 왜곡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상 아래 전통적인 성역할정형화모델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가정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나타난 여성상은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신세대 여성상과 가깝다. 즉 어느 정도 전통적인 성역할정형화에서 벗어나고 자의식의 수준도 중국 여성보다 강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여성들의 가정 내 위치와 사회적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정형화모델에서 탈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가족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와 중국 가족드라마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반면에 중국 여성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사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증가하면서 향후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좁혀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생활방식, 가정내에서의 모습, 남녀의 가치관이 빠르게 중국내에 유입되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그 사회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드라마 분

석을 통해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양국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길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가족 드라마 1편씩을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가정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이상의 문제들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양국간 교류 활성화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영진,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갈등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p.3, 1998.

[2] 김훈순, *다시보는 미디어와 젠더, 나남출판사*, pp.191-219, 텔레비전 드라마속 여성들의 일상: 사랑, 가족, 일, 2013.

[3] C. Glenhill and V. Ball, *Genre and gender : the Case of Soap Opera*, In Hall,S.,Evans,J.,&Nixon S,(2nd des.), *Representation*, London:Sage Publications, pp.335-361, 2013.

[4] 오혜란,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5] 이은진, *드라마를 통한 의미생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6] 김명혜, 김훈순, "여성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38호, pp.203-248, 1996.

[7] 양문희, 강형철, "텔레비전 드라마의 직장내 여성 관리자 및 경영자 묘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5호, pp.95-123, 2005.

[8] 왕일분, *문헌계량법과 내용분석법에 대한 종합연구*, 남경이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6, 2007.

[9] <며느리전성시대>, 정해룡 연출, 조정성 극본

<http://www.kbs.co.kr/drama/age/>

[10] <며느리의 아름다운시대>, 유강 연출, 왕려평 극본, http://v.youku.com/v_show/id_XMjMIODU0MTg4.html

[11] 심미행, "성역할정형화모델의 함의", *인터넷사회학통신*, 제61기, p.4, 2007.

저 자 소 개

이 문 행(Moon-Haeng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불문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Paris 2 대학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1999년 2월 : Paris 2 대학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하 일 단(Yi-Dan Xia)

준회원



- 2011년 2월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 2012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방송, 영상 콘텐츠